

'3퇴'와 평안

제 272기 2016년 10월 17일

2016년 10월 13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5,293만 명

파룬궁 단체가 참가한 캐나다 추수감사절 행진에서 중국인이 '3퇴'하다

[명혜망] 2016년 10월 10일, 캐나다 파룬궁(파룬파파) 수련생들로 이루어진 토론토 천국악단이 키치너-워터루 트윈시티 주최의 성대한 제48회 추수감사절 행진에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현장에는 대략 75만 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행진 중 주최 측은 파룬궁 대오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진을 본 중국인이 '3퇴'를 선택하다

동북에서 왔다는 리 씨는 바로 길 옆에서 행진을 지켜보며 말했다. “천국악단 연주가 정말 좋아요.” 리 씨는 천국악단의 단원들이 모두 파룬궁 수련자이며, 국내 언론들이 모두 파룬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천안문 분신자살 등 악성 사건이 모두 중국과 세계인을 기만하기 위해 중공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과 중공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리 씨는 곧 바로 중공의 공청단에서 실명으로 탈퇴하는 데 동의했다. 파룬궁 수련자는 또 중국 북방에서 온 리 씨를 만났다. 그녀는 캐나다에 여행을 왔는데, 몇 달 후에 귀국한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3퇴

(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존하는데 관한 진상을 설명하자 끝까지 들은 리 씨는 기뻐하며 실명으로 중공 공청단 조직에서 탈퇴했다.

기업 사장, “이번에 드디어 벗어났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중공(중공은 중국과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해외 퇴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기업 사장, 이번에 드디어 벗어났다!

[동북 투고] 졸업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중 한 명은 대기업 사장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정부 부문과 접촉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현재 체제에 대한 불만과 중공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 회사의 공산당 서기이지만, 당비를 안 내. 당비를 반 년 동안 내지 않으면 자동 퇴당이라

고 규정돼 있으니가 퇴당한 거야!”

나는 그가 당원 신분을 진심으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의 사당 신분을 버리도록 도와주지.” 그가 시원스럽게 말했다. “해줘!” 모임을 마친 후 나는 그가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 중공 사당 탈퇴 성명을 올리도록 도와주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우리가 다시 모였는데, 그는 휴대폰에 있는 ‘중공 당원 소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다단계 보다 더 귀찮아.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 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이미 자네 당원 신분을 폐기했어. 사당 조직에 한 것이 아니고

말했다. “만약 월급에서 제한하면 나쁜 사람이 빼앗아 간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늘 '3퇴'를 권하는 전화를 받아.” 내가 말했다. “앞으로 다시 전화를 받거든 이미 탈퇴했다고 말해.” “그게 좋겠네!”

“저쪽에서는 ‘당성 강화’ 학습, 이쪽에서는 ‘퇴당’ 부탁

[대륙 투고] 라오싼(老三)은 모 기관의 한 부서장이다. 그는 일찍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3퇴')했다. 앞서 얼마 동안 중공이 당원들에게 이른바 당성 강화 학습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자 라오싼은 참가를 거절했다.

학습이 끝나고 당위원회가 각자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모 영도가 라오싼을 찾아 서명을 시키자 라오싼이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탈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나한테 당성을 강화하라고 하나요? 나는 서명 안해요. 당신이 나를 그 당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할 겁니다.” 그 영도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돌려 당위 서기에게 보고하러 갔다. 당위 서기는 라오싼이 서명을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 말했다. “내버려두세요. 그가 서명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공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

중공 장쩌민 집단, 파룬궁 박해로 막다른 길에 빠져

[명혜망] 2015년 5월부터 장쩌민을 고소하는 파룬궁 수련생이 출현한 이후 중국 대륙과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생은 17년에 걸친 반박해 활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박해 원흉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면서 그를 법적으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8일까지 최고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사람은 209,804명에 달한다. 수많은 고소장이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고발했고, 비방, 인체 장기 판매, 고문, 집단 학살 등 적어도 18가지 죄명을 언급하며 장쩌민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중국대륙 밖의 아시아 지역에서 180만 명 이상이 장쩌민을 고발

‘중국인의 장쩌민 형사고발을 성원하는 전 세계 연대서명 활동’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돼 180만 명을 넘는 아시아인이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원한다면 마땅히 먼저 국제 조직의 요구에 부응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진상 조사를 수용하고, 국제 형사법을 위반한 장쩌민을 국제 형사재판소 법정에 보내 처벌을 받게 하라고 호소했다.

중국대륙 국민들도 잇달아 서명을 통해 장쩌민 고소를 성원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대륙에서는 이미 21만 명을 넘는 사람이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연대서명으로 고발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그(장쩌민)가 먹고 마시고 계집질하고 도박하면서 한 패의 대 탐오범을 거느리고 국가를 해치는 건 괜찮고, 국민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안 된다고? 이걸 어느 집사설인가?” 다른 사람은 말했다. “장쩌민은 죄악이 극에 달한 매국노다. 그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대량의 탐관을 양성했으니 일찍이 법정에 보내졌어야 한다.” 더욱 많은 사람이 말했다. “장쩌민 사법처리? 지지한다! 지지한다!”

국제사회의 파룬궁 박해 반대

2002년부터 미국 하원은 188호, 304호, 605호와 343호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키

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중단을 중공에 요구했다.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은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의 즉각 중단을 중공에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미 17년 간 지속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시 석방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중공의 장기이식 계통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하계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 9월 12일 전체회의 첫날, 유럽의회 의장 슐츠는 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2016년 7월 27일 통과시킨 48호 서면성명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이 성명은 중공의 양심수 장기 생체적출을 저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독립 조사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면성명(P8_DCL(2016) 0048)의 통과를 곧 유럽의회 전체의 태도 표명을 뜻한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통과된 서명성명 중에서 유일한 중국문제 관련 성명이다.

◆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16년 10월 6일, ‘2016년 중국 인권 및 법치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공이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면서 폭력을 동원해 수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파룬궁 수련생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공이 국민의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매체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뚜렷하고 명확한 신호

어떤 사람은 국가가 파룬궁에 대해 X교라는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교’라는 말은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이 프랑스의 피가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며, 1999년 10월 27일 인민일보가 시류에 영합해 평론가 문장을 발표하면서 장쩌민이 중상하며 쓴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개인의 말과 언론 보도는 법률이 아니다. 게다가 장쩌민의 그런 행위는 위법이다.

파룬궁에 관한 중공의 모든 공개 문건은 1999년 7월 22일 민정부 통고에서 공안부

의 통고까지,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과 이후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까지 모두 파룬궁을 X교로 정의하지 않았다.

2000년 중공 공안부가 ‘사교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 [2000] 39호)를 발표했는데, 내용 중에서 ‘현재 이미 사교로 인정된 조직의 상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교조직이 14개가 있다고 밝혔으나, 그 14개 속에 파룬궁은 없었다.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法制晚报)가 또 다시 그 14개의 사교를 공개해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임을 명확히 했다.

중공의 현 집권자는 이런 방식으로 장쩌민의 파룬궁 비방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파룬궁에 대한 당국의 태도, 즉 파룬궁이 합법임을 표명했다. 이는 또 전 국민에게 전하는 하나의 뚜렷하고 명확한 신호다. 이 신호를 당신은 보아냈는가?

장쩌민이 직면한 것은 역사의 대심판

현재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적극 추종한 왕리쥔, 보시라이, 리둥생, 쉬차이허우(이미 사망), 저우융강, 귀보슝, 저우번순 등은 중공의 내부 투쟁 중에 이미 줄지어 낙마했다. 표면적인 원인은 부패이지만, 사실은 파룬궁 박해에 가담해 악보를 받은 것이다.

현재 장쩌민의 죄악 진상이 끊임없이 공개되어 그의 권세도 종말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많은 중공 관원이 장쩌민과의 결별을 선택하면서 장쩌민 집단을 벗어나고 있으며, ‘호랑이 잡이’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갈수록 많은 파룬궁 박해 가담 관원이 이미 퇴로를 남기면서 사적으로 문서를 수집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시작했다.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3퇴’)한 후 파룬궁 박해 가담을 피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관원의 범죄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는가 하면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어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의 박해 정책은 이미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궁지에 빠졌다. 장쩌민을 비롯해 박해에 가담하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모든 악인은 역사의 대심판에 직면해 있다.

고귀한 중국 동포들이 중공 장쩌민 집단의 사악한 본성을 똑똑히 보아내며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이해하고 속히 ‘3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희망한다.